

‘걱정 반 설렘 반’...학교는 방역전쟁 시작

광주·전남 차분한 2차 등교 체온·건강상태 체크 후 수업 화장실 이용 등 지도 어려워 전국 560여 학교 개학 연기



전국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 중학교 3학년생, 고등학교 2학년생의 등교수업(2차 개학)이 재개된 27일 광주 북구 건국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거리두기를 지켜며 등교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고3에 이어 고2·중3·초1·2·유치원생이 27일 등교개학을 하면서 광주·전남 학교에서는 또다시 ‘방역 전쟁’이 시작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고2와 중3, 초 1~2, 유치원생들이 추가로 등교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고3을 포함 20만 명이 가까운 학생들이 등교해 수업을 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는 560여개 학교·유치원이 2차 등교개학을 미룬 것과는 달리, 광주·전남은 긴장 속에서도 비교적 차분한 등교가 이뤄졌다.

특히 ‘기대’와 ‘설렘’ 속에 시작된 초 1~2, 유치원생들의 등교(원)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진행됐다.

학교 측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교문 입구부터 교실까지의 교장을 비롯한 교사, 교육청 지원 인력까지 배치돼 학생들을 맞았으며, 이들은 학생들이 우르르 교실로 향하는 것을 막고자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지도했다. 학생들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책상에

앉았고, 교사들은 코로나19로 달라진 학교생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고2와 중3 고학년들도 일제히 등교해 방역 매뉴얼에 따라 체온과 건강상태 등을 체크하고 수업에 들어갔다.

올해 첫 등교한 학교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다. 상당수 학교에서는 공간 확보를 위해 교실 밖으로 옮겨진 사물함이 ‘중앙 분리대’ 역할을 했다. 교실 바닥에는 책상이 놓일 위치가 일일이 표시됐다.

학교생활도 엄격히 통제됐다. ‘짜장’도 없이 1m 이상 거리를 두고 혼자 앉아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들어야 했다. 교실을 들

고날 때도 앞문과 뒷문을 따로 이용하고, 복도 통행은 한 방향으로만 해야 했다.

이와 관련 광주 지역 중학교 한 교사는 “등·하교 시 건강상태 체크는 비교적 잘 지켜지는 편이지만 쉬는 시간 화장실 이용과 점심시간 거리두기는 사실상 지도하기 어렵고 관리도 불가능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87일 만에 학교에 나온 고2·중3 학생들은 달라진 일상에 조금은 불편해 했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순조로운 2차 등교개학에도 일부

학부모들의 걱정은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사들과 방역당국의 피로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온다면 등교를 할 수 없고, 다음 달 3일과 8일로 예정된 순차적 개학에 차질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둔 한 학부모는 “어제 하루 확진자가 40명으로 늘고, 학생들의 확진으로 등교를 못하는 학교가 많아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광주·전남이 코로나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잘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교육청 소규모 공립유치원 통폐합 추진

원아 10명 이하 병설 19곳

광주시교육청이 원아 수 10명 미만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추진한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과다 결원 발생 문제로 유치원 운영의 실효성을 상실한 원아 10명 이하 병설 유치원 19곳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공립 유치원 133곳 중 병설 유치원은 121곳인데, 원아 10명 이하 병설 유치원 19곳을 인근 유치원 등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며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의 의견을 들어 통폐합 방식과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폐합 후 통학버스 운영, 리모델링,

원아 활동 공간 확보 등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충원율을 높일겠다는 복안이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며, 학령 인구 감소 추이, 단짙 활동이 많은 유아 교육 특성 등을 고려해 학급당 정원 감축도 신중히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자료를 내고 “공립유치원마다 선호도와 유치원 입학 대상이 천차만별이어서 정원을 채우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원아 10명 이하 병설 유치원을 통폐합하는 것은 병설 유치원의 장점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교육청 교육공무직 내달 13일 필기시험

186명 모집 6.8대1 경쟁률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도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을 오는 6월 13일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치른다. 총 186명 모집에 1265명이 접수해 6.8대 1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2명을 뽑는 교육복지사는 188명이 지원해 94대 1 경쟁률을 나타냈다. 5명을 선발하는 돌봄전담사는 223명이 지원해 44대 1 경쟁률을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장 출입 전 손 소

독과 발열 검사를 한다. 시험장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한다. 발열 검사 시 코로나19 유증상자(고열·인후통·호흡기증상 등)는 시험이 제한되거나 별도의 시험실에서 분리 응시할 수 있다. 응시자는 마스크,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당일 오전 9시부터 입장할 수 있고 오전 10시 15분까지 해당 시험장 교사실에 입실 완료해야 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대 일학습병행 센터 ‘A등급 우수기관’

광주대학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사업 성과평가 결과 ‘A등급’을 달성했다.

광주대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전국 67개 일학습병행훈련 운영기관(제작자유형)을 대상으로 2019년도 협약기관관리 및 훈련실적, 학습근로자 만족도 등을 평가한 결과 A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7년 연속 일학습병행 듀얼공동훈련센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광주대는 산학

협력사업 노하우와 최상의 훈련 장비를 활용한 우수 훈련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전국 106개 참여기업 재직자들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년 이내 입사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학습병행훈련 사업은 한국형 도제식 교육 훈련 제도이며, 기업의 현장실무 교육과 대학의 실무이론 및 사무자동화 교육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동구 무더위 대비 그늘막·쿨링포그 설치

광주시 동구가 여름철을 앞두고 주민들의 무더위를 식힐 다양한 시설을 설치한다. 동구는 주요도로변과 통행로에 그늘막 46개소, 쿨링포그 4개소를 설치·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동구는 온도와 바람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되는 스마트 그늘막을 동구문화센터 횡단보도 앞 등 4곳에 운영한다. 공기 중에 물을 분사해 주위 온도를 3~

5도 낮추는 쿨링포그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푸른길공원에 추가 설치하는 등 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쿨링포그 시스템이 결합된 그늘막도 6월월부터 ▲계림8구역 사거리 ▲계림동 이마트 앞 ▲계림오거리 ▲학운동 무등교 앞 ▲지원2동 집광신협 앞 ▲학동 아이파크 ▲하늘공원 맞은편 등 7곳에 설치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코로나에 기념행사 줄줄이 취소... ‘오월정신’ 확산 아쉬워

5·18 40주년 결산

왜곡·편향 처벌 해결 과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기대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가 27일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부활제’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올 5·18 40주년 기념행사는 ‘기억하라 오월정신! 꽃피어라 대동세상!’라는 슬로건에 따라 5월 정신을 계승하고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코로나19’로 다양한 행사들이 취소·연기되면서 아쉬움이 남았다.

우선, 5·18의 뜻과 정신을 기리는 행사인 5·18전야제가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됐고 수십개의 기념행사가 없어졌다. 서울·부산·인천·대전·대구·울산·충북·전북·전남·세종 등에서 동시에 5·18 기념행사를 개최해 전국화를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취소됐고 온라인으로만 열렸다. 정부 기념식도 참석자 규모를 크게



1980년 옛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주대성회’와 현재의 5·18민주광장을 합성한 사진.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줄이는 등 대폭 축소됐다.

이 때문에 40주년을 계기로 다양한 행사를 통해 미래 세대에 오월 정신을 계승하자는 행사위원회의 애초 취지가 제대로 달성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5·18 역사왜곡 및 편향도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올해도 5·18을 앞두고 보수단체들이 5·18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집회를 예고하는가 하면, 온라인·오프라인 등에서 5·18의 왜곡·편향이 많이 일어났다.

다만,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최후 항쟁을 벌인 옛 전남도청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 기념식이 치러졌고 대통령이 여태껏 이루지 못한 진상규명과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보수야당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과거 망언을 사과하면서 향후 5·18 왜곡·편향 세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위한 정치적 지형이 마련됐다는 점도 40주년을 맞는 올해 성과라는 분석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가 40주년을 맞는 올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기대감도 크다.

위원회가 2년(1년 추가 가능) 동안 적극적인 진상 규명 과제 해결에 나서 국가 결과보고서 작성을 통해 5·18의 진실을 흔들리지 않는 역사로 남겨야 한다는 게 지역민들의 바람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